

# “UAE 적 이란’ 발언 제2 외교참사… 외교라인 교체해야”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 발언 비판…대국민 사과 요구 이재명 “편향 외교 국익 못지켜”…우상호 “나갈 때마다 사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 이란’ 발언에 대해 “제2의 외교참사를 불렀다”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까지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께서 뜬금 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 발언을 내놓

았다”며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 편향 외교로는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아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망발이 일파만 파 커지며 중동을 흔들고 있다”며 “장병 격려 차원

이었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던’이라고 해명한 ‘이XX 외교참사’ 시즌2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무능한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차라리 외교를 안 하는 게 좋겠다”며 “(해의 순방을)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니 그걸 수습하느라 외교부가 아주 죽으려고 한다”라고도 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라디오에서 “파병부대에서 하는 대통령 메시지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며 “그 정도의 발언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려는 검찰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검무죄, 무검유죄’가 바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보여준 공정 잣대의 민낯”이라며 “자기 조직 출신 대통령과 경쟁한 야당 대선후보

를 끝내 제거하려 유례없는 인력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국내 압송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확산하는 데에도 차단막을 쳤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SNS에 퍼지고 있는 이 사진은 이재명 당 대표 가족 사진”이라며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잘못 없는데 또 오라니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文 정부 인사들 ‘사의제’로 몽쳤다

### 정책 포럼 창립…민주 정부 정책성과 평가·민주당 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제’(四直齋)가 18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 진영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세 걸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회견에는 상임대표인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도 박병계·한병도·윤영찬·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개호·신정훈·윤영덕·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공동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한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외부 비판과 문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면서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 왜곡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우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해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의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앞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해 집권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한층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외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방정근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는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운영으로는 대한민국

의 성공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의제 출범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계를 결집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계가 사의제를 중심으로 뭉쳐 당의 현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고문으로 위촉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친문계 의원 모인인 ‘민주주의 4.0’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친문계의 결집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사의제에 참여하는 도종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사의제에는) 전문으로 지칭된 사람도 있지만 직업 공무원도, 전문가도, 학자도 있다”며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게 포럼 창립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친문계의 결집과는 거리를 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국힘, 설 명절 앞 광주·전남 민심 잡기

### 지도부, 5·18 민주묘지 참배·현장 비대위서 지역 현안 점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전남으로 총출동해 민생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연다.

비대위 회의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당직자, 광주·전남 당직자, 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5·18 기념식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현장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 설 명절 민심과 차기 총선을 겨냥해 호남 민

심 잡기 행보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인 복합쇼핑몰,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나주로 이동해 나주 목사교을 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도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전남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본경선 후보 4명도 함께 참석해 현장 최고위회의를 열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발의

### 김승남 의원, 서민 주거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8일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2개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이 끝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b>총 계</b>			<b>44</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석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월)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